

## <2017 미술주간 올해의 미술도시 선정 사업> 심의 총평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심의 : 2017. 6. 9(금) 서울 예술가의집 3층 세미나실1
  - 컨설팅 : 2017. 6. 21(수) 서울 예술가의집 3층 세미나실1
  - 2차 심의 : 2017. 7. 6(목) 서울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박영택, 백기영, 정재숙

2017 미술주간 올해의 미술도시 심의는 총 3인의 심의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심의는 1차 서류 및 개별 단체 PT, 컨설팅 회의, 2차 최종사업계획서 검토로 진행하였다.

올해의 미술도시 선정은 다양한 미술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미술 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의 기준인 지역 내 풍부한 미술 인프라(30%), 수행 단체의 경력 부합성(20%),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20%),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30%)에 따라 심의하였다. 1차 심의에서 지원대상 우선 협상 단체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컨설팅 회의에서는 우선 협상 단체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개선방향을 자문하였다. 컨설팅 반영안을 바탕으로 최종 2차 심의를 통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30,000천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였다.

제주는 자연환경, 미술관, 제주의 문화유산, 다양한 미술 인프라가 많은 곳이고, 이곳들을 '올레길'처럼 투어하는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제주비엔날레와 동일한 시간대에 열리는 '올해의 미술도시' 행사가 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 묻히거나 부대행사로 머물지 않도록 분리·독립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심의위원의 의견이 모였다.

<2017 미술주간>의 올해의 미술도시로 선정된 제주가 제주만이 지닌 문화유산, 그 지역의 독특한 소재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가/작업들, 제주만의 고유한 미의식을 실질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하고 치밀한 배려와 전략이 더욱 요구되며 이는 결코 이를 진행해나가는 인적 구성원 개개인들의 자질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심사위원들은 위와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만장일치를 통해 올해의 미술도시로 제주를 선정하였고,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미술도시 진행을 지켜볼 것이다.

2017 미술주간 올해의 미술도시 선정사업 심의위원 일동